

# 순창군, 목욕비 반절 지원

### 만 65세이상 노인·1~3급 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순창군이 읍지역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읍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순창군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가 제21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됐다. 이번 조례의 결로 군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목욕탕 이용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군보조금과 목욕탕 업주를 부담을 포함하면 읍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은 회당 2,000원의 비

용을 지급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목욕탕 지원 횟수는 1인 주2회 월8회 한도에서 지원하고 후서기인 6월 7월, 8월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순창읍 대중목욕탕 업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침 등을 보완해 올해 9월 부터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 통과로 순창군은 11개 읍면에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실제 순창군의 10개 면 중

인계, 동계, 적성, 유등, 금과, 쌍치, 북흥 7개 면에서는 이미 작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또 풍산면과 팔덕면은 9월 운영을 목표로 마지막 공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구립면 작은목욕탕도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읍지역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통과와 면지역 작은목욕탕 운영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국립임실호국원 '나라사랑 태극기 꽃기 체험행사' 진행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신준태)에서는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 61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꽃기 체험행사'가 열리고 있다.

나라사랑 태극기 꽃기 체험 행사는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고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안보의식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북도 내 각급 기관·단체와 보훈단체, 학생, 군인 등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립임실호국원 담당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들이 호국영령들의 값진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호국원



이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라사랑 태극기 꽃기 체험행사는 5

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체험을 원하는 단체는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 선양교육팀 063-640-603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주민밀착형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

### 시범운영 대상면 등 4개면에 업무 담당자가 찾아가 적기 제공

고창군이 주민밀착형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올해 정부의 사회복지 중점 추진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읍면동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2월 조작개편 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 보건담당을 배치하고 통합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서

비스를 직접 신청하기 어렵고 복지·보건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복지 및 보건업무 담당자가 함께 찾아가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주민밀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주민밀착형 맞춤 복지서비스'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들을 사회복지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민관이 협력해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꼭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

되지 않고 제공되어 복지대상자의 만족도도 높다.

현재 고창군은 대산·아산·심원·부안면 4개면 지역에 '주민밀착형 맞춤 복지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4개면을 1개 권역으로 묶어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2018년까지는 고창군 14개 읍면 전체에 확대 실시해 복지 대상자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적정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다문화가정 한국이름 지어드려요

### 남원시, 출산자녀·개명 희망 결혼 이민자에게

남원시가 시책사업으로 개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 이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하는 자녀들에게는 작명가의 재능 기부를 통해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

남원시는 5월 3명의 출생자녀와 개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2명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출생자녀 작명증서 전달식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직접 만든 배냇저고리와 (유)일신중합건설 유명수 대표의 1백만원 기부로 신생아에게 출산육아용품 함께 전달했다.

출산을 저하로 인구감소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은 출산율을 높여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법 절차 및 비용 부담으로 개명신청을 못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사항 지원으로 작명비용 절감 효과도 기여했다.

다문화가정 신청자들이 읍면동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이름의 뜻풀이와 함께 작명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개명을 희망하는 가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결혼이민자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는 다문화가족 이름지어주기 무료 서비스 외에도 찾아가는 다문화마을학당 운영과 친정부모 역할을 대신해주는 하트-맘 맺기 사업 등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펼쳐 행복한 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숲길 정비사업 시행

남원시는 시민들의 주요 산행 노선인 교통산, 기린봉, 북음산 등산로를 정비 및 연결하는 2016년 숲길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교통산, 기린봉, 북음산 등산코스를 연결하기 위해 북음산 둘레길 등산로 1.420km를 새로 조성하고, 88고속도로 생태이동통로를 활용하여 기존의 기린봉 등산로(7km)와 교통산 임도(8.2km)를 연결해 총길이 16km의 등산코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숲길 정비사업 대상 등산코스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방향표지판, 안내관, 원주목 계단, 목코, 데크로드 등이 설치된다.

남원시는 주민설명회와 실시계획을 마치고 5월 중 곧바로 등산로 연결 및 정비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오는 6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숲길 정비사업은 시민들의 건강, 정서함양, 여가활동 등으로 등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새로운 등산코스를 조성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제공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서울지역 초등학교 모내기 행사 체험 '인기'

순창군은 25일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순창의 친환경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모내기 행사가 진행된 학교는 서울 동작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다.

이날 모내기 행사에는 순창군 관계자와 급과 태이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학교 관계자 학생 등 1,000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순창 농민들이 직접 친환경 농업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들과 모내기 체험을 진행해 도시 아이들이 접하기 힘든 친환경 농업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농업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아이들은 낱생 처음 모를 심어보고 모가 커가는 과정을 설명 들으며 연신 미소를 지었다.

서울 용두 초등학교 이정옥 교장 선

생님은 "오늘 행사는 아이들이 농촌을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농촌체험시설 설치로 통해 우리 농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며 "특히 고추장으로 유명한 발효의 마을 순창에서 직접 농민들이 참여해 행사를 진행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학교 급식 확대 등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의 마을이나 단체와 도시 초등학교 간 협력을 통해 학교에 소규모 학교 논(농업 체험장)을 만들고 벼 이앙, 생육관리, 추수행사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히 친환경 농업인들이 도시학교와 신뢰 모델을 창출해 학교급식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도 기대되는 사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 운암면,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임실군 운암면은 25일 운암면사무소에서 '2016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전주·완산소방서, 운암면, 의용소방대, 이장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사 화재발생 시 초동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발생을 가정한 위급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박현기 면장은 "한 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에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오늘 훈련을 계기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유비무환의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소방훈련은 청사 내 소방탐지시설 및 10인 이상 상시 근무자 상주 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